T-11
TABLE
CLINIC

전치부 개방교합 환자의 교정치료 치험례

정 성 호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전치부 개방교합은 교정치료 전이나 치료 중간에 흔히 발생하여 치료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장이 끝난 성인 환자에서 상악전돌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심미적인 문제 때문에 더욱 곤란하게 된다.

본 증례에서는 치료도중 상·하악의 악간 고무줄의 사용으로 상악전치부가 정출되어서 gummy smile을 나타내게 되어 이 부분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Tweed-Merrifield의 Edgewise Sequential Directional Force Technique을 적용하여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치료기간 동안 FMA의 유지 혹은 감소, Facial Height Index의 유지 혹은 증가, 안모의 개선 등에 유의하였다.

T-12
TABLE
CLINIC

Herbst appliance - 영구치열기의 Functional appliance

장 승 은
목동 예치과병원 교정진료부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을 가진 경우 환자가 좋은 안모를 가지고 있을 때는 overjet과 overbite이 크다고 하더라도 선뜻 발치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울 때가 있다. 또, 하악이 후방위치된 2급 부정교합이지만 이미 영구치열이 완성된 경우 orthopedic treatment를 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단순한 치아이동 만으로 안모의 개선도 이루며 치료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안모와 골격부조화 개선을 함께 얻을 수 있으며 치료기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Herbst appliance를 사용할 수 있다.

80년대 초반부터 Pancherz를 비롯한 많은 임상가들이 Herbst appliance의 치료 효과를 입증해 왔으며 본 병원에서도 수년 전부터 영구치열이 완성된 adolescent, 혹은 성장이 거의 완료된 young adult를 대상으로 Herbst appliance를 사용하여 왔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내에 안모의 개선과 좋은 교합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Herbst treatment가 심미적인 문제에서, 치료진행 mechanic 상에서 골격성 2급 부정교합 치료에 어려움을 느낄 때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 치료 증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T-13
TABLE
CLINIC

Non-extraction treatment of crowding

심혜영 · 안효범 · 장영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교정치료의 목적은 악골, 치아, 그리고 주위 연조직을 균형있고 안정된 위치로 유도하여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교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교정적 치료 방법에 관하여 교정의들 사이에 많은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정치료시 발치 여부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발치, 비발치의 결정은 이용 가능한 진단 자료의 분석과 함께 환자에 대한 임상적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교정의들이 자주 이용하는 발치 기준으로는 연조직 측모, 치열궁 길이 부조화, 절치 경사도, 치주상태, 치열궁 확장시 교합 안정성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교정의의 경험과 심미적 기준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골격 구조에 가장 적합한 위치로 치열을 배열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치로 치열이 배열되어